

안전한 설 명절 위한 응급진료체계 구축

전주시, 연휴 기간 335개 병·의원·235개 약국 운영·7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가동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응급환자 발생 및 진료 공백에 대비해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북대병원·예수병원·대지인병원·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고려병원·자인플러스병원 등 전주지역 7개 응급의료기관과, 335개 병·의원, 235개 약국이 문을 열 예정이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의 설 명절 연휴 동안 시민들의 의료공백 및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 △7개 응급의료기관 △335개 병·의원 △심야약국 3곳(사랑약국·열약국·인후대형약국)을 포함한 235개 약국 △달빛어린이병원 3곳(대지인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3개 보건진료소의 교대 운영을 통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설명절 연휴 기간 보건소 비상진료 상황실을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각각 설치·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별 전담책임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

국에 대한 안내(063-281-6200, 063-250-3900) 및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시보건소는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반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감염병 보고 및 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단 설사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 근무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설 명절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정보는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의 '설명절 연휴' 통합정보 안내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onju.go.kr),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를 맞아 타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e-egen)' 앱(App)을 통해 문을 여는 전국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응급' 또는 '응급의료' 등으로 검색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연휴 기간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귀성객, 관광객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진료 상황실 및 감염병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1일, 덕진구 금암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라면 50박스과 떡국떡 500인분을 후원했다.

전주라이온스클럽, 설맞이 라면·떡국떡 후원

전주라이온스클럽(회장 배진오)은 지난 21일, 덕진구 금암2동 주민센터(동장 조은숙)를 방문하여 라면 50박스와 떡국떡 500인분을 후원하여 훈훈함을 자아냈다.

전주라이온스클럽 배진오 회장은 "저소득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라며 "새해를 맞아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은숙 금암2동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주민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전주라이온스클럽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부받은 물품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라이온스클럽은 금암2동 주민센터와 1:1 결연봉사 협약을 체결하여 해마다 김장김치 및 난방 취약가구를 위한 겨울나기 물품(이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온정을 꾸준히 나누며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제자교회, 평화2동에 320만원 상당 백미 기탁

전주제자교회(담임목사 박용태)은 평화2동 주민센터에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백미 10kg 100포(32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전주제자교회 박용태 목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도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웃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평화2동장은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관내 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가구에 잘 전달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 제자교회는 매년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교와 구제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으며 설,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명절 꾸러미, 백미, 과일상자 등을 전달하여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가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의회, "설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남관우 의장 등 시의원, 모래내시장서 장보기 나서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중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남관우 의장과 김원주 운영위원장, 최용철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은 온

누리상품권으로 설 제수용품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남관우 의장은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 시장 확대 등으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장 상인을 돕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서도 주장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관주교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별도의 추가 증거 제출이나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지 않아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1심에서 내려졌던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법원이 지극히 타당한 판시를 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내심의 의도 등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이상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1심 재판부는 당시 발언을 복수 판단, 표현의 해석과 사실과 의견의 구분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시민들만 생각하며 시장에 임했고, 정읍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다짐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뉴스

이 시장도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장께서 무죄를 선고해주신다면 정읍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시정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9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과 환송 전 합소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이 시장은 죄를 앓을 뻔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한 뒤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소위 '이재명 판례'로 불리는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후보자가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이 비추 보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뉴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금>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